

밤 벚꽃 구경하는데 기로등 꺼버린 상록회관 ▶6

1952년 4월 20일 창사 대표전화 (062)222-8111

AI 여파... '삼겹살이 금겹살' ▶9

kwangju.co.kr

화합의 강 섬진강... 관광 중심 구례 ▶13

제19709호 1판 2014년 4월 1일 화요일 (음력 3월 2일)

광주시장·전남지사 전략공천도 컷오프도 없다

새정치, 후보 경선 초읽기

오늘 단체장 경선 룰 제시

새정치민주연합이 지방선거 후보 공모에 나선다. 이어 1일 광역단체장 경선 룰을 제시할 예정이어서 광주시장·전남지사 후보 경선이 초읽기에 들어갔다.

이번 광주시장, 전남지사 선거전은 협역 시장은 물론 4명의 국회의원 등 거물급 인사들이 대거 참여, 과거 그 어느 때보다 치열한 경쟁을 예고하고 있다.

31일 새정치민주연합 핵심 관계자에 따르면 중앙당은 이날 저녁 상임최고위원회를 개최, 광역단체장 경선 룰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날 경선 룰이 마련된다면 1일 의원총회를 개최, 이를 보고한 뒤 최고위원회의를 열어 의결할 계획이다.

현재까지 거론되고 있는 광주시장 후보 경선 방안은 '배심원제(50%)+여론조사(50%)'와 박원순 서울시장 선출 경선 룰(배심원제 30%, 여론조사 30%, 현장투표 40%)로 알려지고 있다. 현장투표의 경우, 중앙당에서 여론조사를 통해 선거인단을 구성하는 방법과 일반 시민들이 현장에서 직접 투표하는 방식이 거론되고 있다.

전남지사 후보 경선은 3개 지역으로 나눠 후보 토론회를 실시한 뒤, 배심원제 투표(50%)와 여론조사(50%)를 복합한 안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하지만 호남지역 광역단체장 경선 룰이

원만하게 도출될 것인지는 미지수다. 구 민주당과 구 새정치연합 간의 쟁점이 다른데 경선 룰을 둘러싼 후보들의 입장이 극명하게 갈리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일각에서는 광역단체장 경선 률 결정이 2~3일 늦어지거나 공천위원회에서 시행세칙 등을 통해 타 지역과 차별화가 이뤄질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다.

이를 반영하듯, 공천위원장인 노동봉 사무총장은 이날 "경선 룰이 확정되면 공천위에서 지역별로 적합한 경선 방식을 정하는 역할을 하겠다"고 설명했다.

특히, 새정치민주연합은 광역단체장 후보 률 전략공천하지 않고 모든 지역에서 경선을 실시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이에 따라, 일각에서 제기됐던 호남 광역단체장 전략공천 설은 사실상 없던 일로 됐다.

또한, 광주시장·전남지사 후보 경선의 최대 변수인 컷-오프(예비경선)도 도입하지 않는 방향으로 의견이 모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후보가 3명일 경우, 컷-오프가 가능하지만 4명에서 1명을 줄이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것이다. 여기에 컷-오프 자체가 후보들 간의 유불리 논란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다는 점도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한편, 새정치민주연합은 오는 2일까지 후보자를 공모하고 이후 심사를 거쳐 10일까지 경선 후보 등록을 마감, 26일까지 후보를 확정하기로 했다.

/임동욱 기자 tuim@kwangju.co.kr



벚꽃아래 따스한 봄날씨를 보인 지난 31일 오후 광주시 서구 상록회관을 찾은 삼층객들이 활짝 핀 벚나무 아래를 거닐고 있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프로야구 오늘 광주 챔피언스필드 개막전... 오후 6:30 NC vs KIA

北 포탄 100여발 NLL 이남에 낙하

軍, K-9 자주포 300여발 대응 사격

북한이 지난 31일 백령도 인근을 비롯한 서해 북방계선(NLL) 지역 7곳에서 해상 사격훈련을 했고, 이 가운데 100여발이 NLL 이남 우리 해역에 떨어졌다.

북한은 이날 총 500여발의 해안포와 방사

포를 NLL 인접 해상으로 발사했고, 포탄은 NLL 이남으로 최대 3km 정도 넘어온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 군은 북한군 포탄이 NLL 이남 해상에 떨어지자 K-9 자주포로 300여발의 대응 사격했다.

북한군은 100mm 해안포와 122mm 및 240mm 방사포 등으로 사격했고 특히 122mm 방사포는 화력지원정에 싣고 해상에서 발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방부의 한 관계자는 "1차 사격은 오늘 오전 우리 군에 통보한 7개 구역에서 동시에 진행했지만 2차 사격부터는 백령도 동북쪽 해상(2구역)에서만 실시됐다"고 말했다.

북한은 이날 총 500여발의 해안포와 방사

포를 NLL 인접 해상으로 발사했고, 포탄은

NLL 이남으로 최대 3km 정도 넘어온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 군은 북한군 포탄이 NLL 이남 해상에 떨어지자 K-9 자주포로 300여발의 대응 사격했다.

북한군은 100mm 해안포와 122mm 및 240mm

방사포 등으로 사격했고 특히 122mm 방사포는

화력지원정에 싣고 해상에서 발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방부의 한 관계자는 "1차 사격은 오늘

오전 우리 군에 통보한 7개 구역에서 동시에

진행했지만 2차 사격부터는 백령도 동북쪽

해상(2구역)에서만 실시됐다"고 말했다.

북한은 이날 총 500여발의 해안포와 방사

포를 NLL 인접 해상으로 발사했고, 포탄은

NLL 이남으로 최대 3km 정도 넘어온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 군은 북한군 포탄이 NLL 이남 해상에 떨어지자 K-9 자주포로 300여발의 대응 사격했다.

북한군은 100mm 해안포와 122mm 및 240mm

방사포 등으로 사격했고 특히 122mm 방사포는

화력지원정에 싣고 해상에서 발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방부의 한 관계자는 "1차 사격은 오늘

오전 우리 군에 통보한 7개 구역에서 동시에

진행했지만 2차 사격부터는 백령도 동북쪽

해상(2구역)에서만 실시됐다"고 말했다.

북한은 이날 총 500여발의 해안포와 방사

포를 NLL 인접 해상으로 발사했고, 포탄은

NLL 이남으로 최대 3km 정도 넘어온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 군은 북한군 포탄이 NLL 이남 해상에 떨어지자 K-9 자주포로 300여발의 대응 사격했다.

북한군은 100mm 해안포와 122mm 및 240mm

방사포 등으로 사격했고 특히 122mm 방사포는

화력지원정에 싣고 해상에서 발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방부의 한 관계자는 "1차 사격은 오늘

오전 우리 군에 통보한 7개 구역에서 동시에

진행했지만 2차 사격부터는 백령도 동북쪽

해상(2구역)에서만 실시됐다"고 말했다.

북한은 이날 총 500여발의 해안포와 방사

포를 NLL 인접 해상으로 발사했고, 포탄은

NLL 이남으로 최대 3km 정도 넘어온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 군은 북한군 포탄이 NLL 이남 해상에 떨어지자 K-9 자주포로 300여발의 대응 사격했다.

북한군은 100mm 해안포와 122mm 및 240mm

방사포 등으로 사격했고 특히 122mm 방사포는

화력지원정에 싣고 해상에서 발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방부의 한 관계자는 "1차 사격은 오늘

오전 우리 군에 통보한 7개 구역에서 동시에

진행했지만 2차 사격부터는 백령도 동북쪽

해상(2구역)에서만 실시됐다"고 말했다.

북한은 이날 총 500여발의 해안포와 방사

포를 NLL 인접 해상으로 발사했고, 포탄은

NLL 이남으로 최대 3km 정도 넘어온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 군은 북한군 포탄이 NLL 이남 해상에 떨어지자 K-9 자주포로 300여발의 대응 사격했다.

북한군은 100mm 해안포와 122mm 및 240mm

방사포 등으로 사격했고 특히 122mm 방사포는

화력지원정에 싣고 해상에서 발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방부의 한 관계자는 "1차 사격은 오늘

오전 우리 군에 통보한 7개 구역에서 동시에

진행했지만 2차 사격부터는 백령도 동북쪽

해상(2구역)에서만 실시됐다"고 말했다.

북한은 이날 총 500여발의 해안포와 방사

포를 NLL 인접 해상으로 발사했고, 포탄은

NLL 이남으로 최대 3km 정도 넘어온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 군은 북한군 포탄이 NLL 이남 해상에 떨어지자 K-9 자주포로 300여발의 대응 사격했다.

북한군은 100mm 해안포와 122mm 및 240mm

방사포 등으로 사격했고 특히 122mm 방사포는

화력지원정에 싣고 해상에서 발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방부의 한 관계자는 "1차 사격은 오늘

오전 우리 군에 통보한 7개 구역에서 동시에

진행했지만 2차 사격부터는 백령도 동북쪽

해상(2구역)에서만 실시됐다"고 말했다.

북한은 이날 총 500여발의 해안포와 방사

포를 NLL 인접 해상으로 발사했고, 포탄은

NLL 이남으로 최대 3km 정도 넘어온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 군은 북한군 포탄이 NLL 이남 해상에 떨어지자 K-9 자주포로 300여발의 대응 사격했다.

북한군은 100mm 해안포와 122mm 및 240mm

방사포 등으로 사격했고 특히 122mm 방사포는

화력지원정에 싣고 해상에서 발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방부의 한 관계자는 "1차 사격은 오늘

오전 우리 군에 통보한 7개 구역에서 동시에

진행했지만 2차 사격부터는 백령도 동북쪽

해상(2구역)에서만 실시됐다"고 말했다.

북한은 이날 총 500여발의 해안포와 방사

포를 NLL 인접 해상으로 발사했고, 포탄은

NLL 이남으로 최대 3km 정도 넘어온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 군은 북한군 포탄이 NLL 이남 해상에 떨어지자 K-9 자주포로 300여발의 대응 사격했다.

북한군은 100mm 해안포와 122mm 및 240mm

방사포 등으로 사격했고 특히 122mm 방사포는

화력지원정에 싣고 해상에서 발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방부의 한 관계자는 "1차 사격은 오늘

오전 우리 군에 통보한 7개 구역에서 동시에